

국방부 장관 주재

방산업체 대표 초청 리셉션 개최

지난 1년간 방위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헌신한 방산업체장 및 방산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金東鎮 국방장관 주재 리셉션이 지난 12월 4일 국방회관에서 있었다.

이날 리셉션에는 국방부장·차관을 비롯하여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軍 수뇌부와 정부관계자, 방산업체 대표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장관 만찬사



존경하는 류찬우 회장님, 김영구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방산업체 대표 및 내외귀빈 여러분!

먼저 올 한해 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자주적 방위력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해 오신 방산업체 대표 및 관계관 여러분께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경제는 지금 IMF의 구제금융에 의존해야 할 만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우리 방위산업 역시 선진국의 기술보호장벽과 기본 병기류 소요물량의 감소 등으로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정부재정의 초긴축 편성에 따라 방산물량의 감축 또한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와같은 방산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행정규제완화와 방산육성기금의 지원확대, 방산물자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계속 유지는 물론, 계획된 방위력 개선 사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등 방위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주국방의 동반자로서 방산업체의 발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군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방산업체에서도 꾸준한 기술개발과 민수분야의 적극 참여 그리고 해외시장의 개척 등 획기적인 자구노력을 통하여 우리의 방위산업이 다시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방산업체의 무궁한 발전과 방산업체 대표 및 내외귀빈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회장 답사



존 경 하 는
김동진 국방
부 장관님!

김영구 국
방위 원장님!
그리고 방산
관계관과 업
계 대표 여러분!

장관님께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방산업계
대표를 위한 격려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업계를 대표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
립니다.

아울러 방위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노력하
여 주신 방산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

후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
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남북이 대
치하면서 긴장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는 북한의
모험적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구축을
무엇보다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며 21세기에 적응하는 한국적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과 생산에 주력해야 할 것입
니다.

지금 우리경제는 심각한 금융, 외환 등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방산업계는 경제 위기극복 및 21세기
도약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 감량경영 등
경영체질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천함으
로써 현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평소 방위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처럼 유익한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장
관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빈 여러분!

장관님의 건승과 방위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97 제 7 차 방위력 개선 사업

이번 방위력개선사업은 '97년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집행승인된 사업들로서 승인된 '97예산규모는 약 2,000여 억원이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10월 11일 프랑스제 미스트랄로 기종결정된 「휴대용 대공유도탄」과 인도네시아로부터 상호 대응구매로 추진되는 「중형 수송기」사업이 집행, 승인되었다.

■ 휴대용 대공유도탄

육·해·공군의 국지방공용 대공화력을 보강하기 위해 프랑스제 “미스트랄”을 해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전력화되어 운영중인 “재브린, 미스트랄”에 이어 이번에 집행승인된 사업예산은 총사업비로 약 3,000여 억원이다.

사업내용은 발사기, 유도탄 등 주장비와 함께 피아식별장비, 야간조준경 등의 부수장비도 일괄 승인됨에 따라 전력화 즉시 신속한 적기 포착 및 야간 작전능력을 보유토록 하였다.

제작사는 “마트라”사이며, 유도탄 유도는 적외선(熱) 추적방식으로 사정거리 약 5km, 92% 이상의 명중률을 보유하여 대공포와 함께 국지 대공방어망의 핵심 전력으로 운영된다.

■ 중형 수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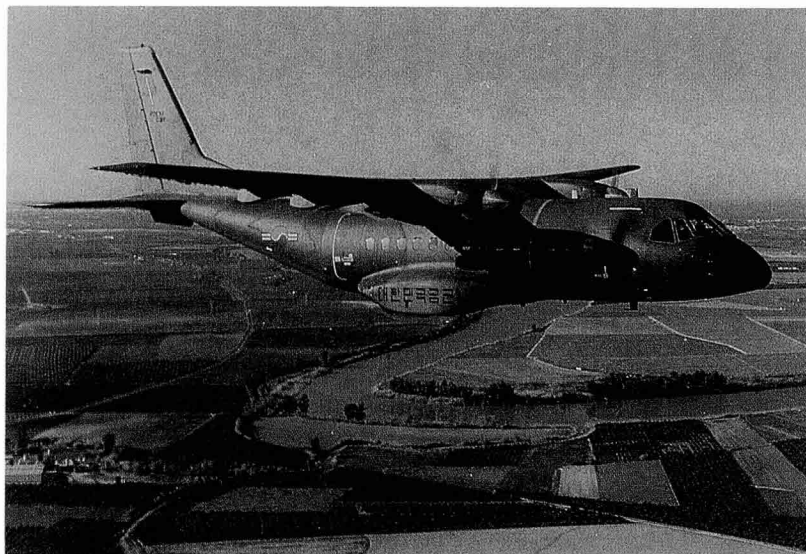
공군의 공수지원 및 대비정규전 능력신장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산 CN-235를 방산물자 상호 대응구매로 확보토록 주장비 및 군수지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약 1,000여 억원이 집행 승인되었다.

본사업을 인도네시아산으로 추진한 경위는 '94년 한·인니간 군수공동위원회에서 상호 협력방안으로 대응구매 방안이 제기된 이후, 방산수출 확대 및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95년 구매선 결정, '96년 시험평가, '97. 6월 최종합의서가 체결되었다.

제작사는 IPTN사이며, 스페인 CASA사에서 도입 운영중인 기종과 동일형이고, 성능으로는 순항거리가 약 3,000여km, 화물 및 병력

▼ '92년 프랑스에서 도입해 운용중인 Mistral 대공유도 미사일





▲ CASA社에서 도입해 공군에 실전 배치 운용중인 CN-235M 중형 수송기

수송, 탐색/구조, 야간 해상조명임무 등을 수행하는 다목적 수송기로서 전력화시 대형과 중형 수송기의 복합운영 여건이 강화되어 임무 조건에 따른 신속적인 항공전력 운영능력 확충으로 공수작전 효율성이 증대된다.

■ 항공부대 장비 보강 사업

지상군이 운영중인 중형 헬기(UH-60)에 대한 정비능력 향상과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탑재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다.

* 중형 헬기 지원장비

헬기의 가동률과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부대 창정비 및 야전정비에 소요되는 정비 지원장비를 확보토록 약 20여 억원이 집행승인되었다.

* 중형 헬기 탑재장비

헬기의 항속거리 증가를 위한 보조연료탱크 장착 등과 같이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5종의 탑재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금번에 수개년간의 총사업비로 약 400여 억원이 집행승인되었다.

■ 편제장비 보충 사업

* 1.5톤 신형지프

20여년간 사용한 노후장비인 현용 1.5톤 차량(K-111)을 정밀장비탑재, 환경오염 방지 등 제반 운영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신형 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해 약 100여 억원이 집행승인되었다.

* 기동장비 2종

노후된 기동장비중 1.5톤 구급차와 2.5톤 카고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약 200여 억원을 집행 승인하였다.

■ 기타 3개 사업

* 육군 각종 탄약

전투 지속능력 향상을 위해 예비탄약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종심방어전에 긴요한 장사정/고위력 탄종인 155밀리 RAP탄 등 탄약 3종을 확보토록 약 300여 억원이 집행승인되었다.

* 공군 T-59 창정비 장비

고등훈련기인 T-59 항공기의 엔진 창정비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약 100여 억원이 집행승인되었다.

전력화시 외주(영국) 창정비를 수행함에 따른 고비용, 기간 장기화를 방지하여 군수지원의 자족성 및 항공기 가동률 향상을 획득하게 된다.

* 『시험평가』

지상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인 탄약운반장갑차, 신형자주포 등 3개사업에 대한 성능 시험평가 사업이 집행승인되었고, 공군의 해외구매 사업인 조기경보통제기 및 장거리레이다 대상 장비에 대한 현재 시험평가 사업이 집행승인되었다.